

백종원 “방송 왜 하나고?...좋은 일 한다고 해주는게 뿌듯”

누구보다 파급력 있는 ‘반(半)’ 방송인’

3대천왕 · 골목식당 · 맛남의 광장 이끌어



위한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식당에 지나친 간섭을 하냐’는 물음부터, 많은 부수적인 오해나 따가운 시선도 받는다. 그래서 백종원에게 물었다. 이 수많은 오해에 대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하는 이유, 그리고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 ‘골목식당’이 100회가 넘었다. 그 시간이 어땠나.

▶(웃음) 많이 오해하는 점이 내가 ‘골목식당’을 하면서 스트레스받고 화병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다. 식당주인이라는 걸 빼면 그냥 내 옆에 있을 평범한 사람들 아닌가. 그래도 촬영하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세계 말할 때도 있는데 출연자한테도 영향이 미치니까 편집을 할 때가 많다. 소위 말해 ‘빌런’이라고 부르지는 않나. 촬영은 더 솔직하게 하지만, 방송상에서 흑시(출연자가) 너무 욱 먹을 수도 있는 건 빼지고 한다.

- 출연하는 프로그램 방송을 안 본다.

▶모니터를 하면 리얼이 안 되는 것 같다. ‘내가 왜 저러지?’ ‘저러면 욱 먹겠는데?’ 생각하면서 멋있어 보이려고 하면 안 되잖나. 그래야만 어딘가에 덕쳐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 같다. 식당을 처음 만날 땐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받은 것 같다. (식당주인이) 진심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다. 시청자들의 오해 중 하나가 시청률 때문에 일부러 ‘빌런’을 섭외하나는데 그게 제일 큰 오해다.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나 역시 두세 번 이상 촬영해야 (상대방에 대해) 알게 되더라. 일부러 이상한 식당만 섭외하는 건 전혀 아니다.

- 방송을 통해 많은 오해도 받는데.

▶혹자는 ‘너는 음식장사하는 사람이 왜 남의 가게 일을 하냐’ 왜 남의 가게

메뉴수를 줄이라고 하냐 라고도 한다. 당장의 앞만 보고 우리 가게들 잘 되게 하려면 이런 (작은) 가게들 다 망하라고 하겠지. 하지만 난 프랜차이즈와 개인의 식당이 경쟁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타깃이 다르다고 본다. (요식업자들이) 다들 경쟁력을 갖추면 멀리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식산업 자체가 성장할 거라고 본다. 인구는 늘지 않고, 점점 식사를 거르는 시대인데 어떻게든 더 경쟁력있는 식당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외식시장이 풍부해지고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지지 않겠나.

- ‘골목식당’을 하면서 가장 뿌듯했을 때는 언제인가.

▶제일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연돈(포방터시장 돈가스집) 사례가 제일 뿌듯했다. ‘골목식당’ 출연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욕심과 대의적인 명분, 앞을 내다 보는 것과의 싸움이다. 당장 돈을 벌고 싶고, 좀 더 버텨서 오래 가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인 거다. 이분들(포방터시장 돈가스집 사장 부부)은 대단한 거다. 그런 고민을 다 이겨내더라. 이분들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됐는데, 꽃잎이 버티는 이분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너무 안 됐더라. 상황을 다 확인해보고 이사를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마땅치 않았다. 그래서 내가 해본다고 하고 이렇게 (제주도로 이전) 된 거다.

- 기정이 생긴 후 변화는.

▶많이 바뀌었다. 처음 방송할 땐 회식하면 2차, 3차 가곤 했는데 지금은 절대 아니다. 애들도 있고, 아내도 애주기니까 집에서 같이 시간 보낸다. 아무래도 훨씬 더 안정적인고, 마음이 너그러워졌다. 아내도 아이들도 있고 화날 일이 별로 없다. (누군가가) 도발을 해도 일단 집이 안정적인지 마인드 컨트롤이 쉽다. 낯선 성격도 많이 무뎠고 욱도 줄었다. (웃음) 원래는 입이 거칠었는데, 지금은 실제로도 좋은 말을 많이 한다. 최근 인터뷰 하면서 ‘척’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척을 하면서 살다 보니 내 삶도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더라.

- 부부나 가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게 부담스럽지는 않나.

▶부담되기도 한다. 아이들 나오는 방송에서 (섭외)요청을 받기도 하는데 절대적으로 안 하려고 한다.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방송에 노출된 것은 유튜브와 ‘맛남의 광장’에서 아이들이 나온 건데, 프로그램의 뜻이 잘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이들과 함께 촬영했다.

- 외식문화,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소비자들도 외식관련 프로그램을 보다가 처음에는 욱을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된다. 요즘에는 식당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높아졌고, 식당 운영, 식당 직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외식문화가 발전하려면 파는 사람도 중요하고, 사먹는 사람도 중요하다. 이렇게 문화가 자리 잡고 (외식산업) 파이도 커지면 우리도 먹고 사는 거다. 나 좋아하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당장을 위해 경쟁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경쟁력을 갖추자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을 하는 거다. (음식 외의) 다른 방송은 안 하잖나. 다른 방송을 하면 정말 방송인이자. (웃음)

- 앞으로 목표는.

▶음식을 사먹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면, 만드는 사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순두부찌개를 집에서 만들면 얼마인데 식당에서 엄청 남겨 먹는다고 하는데 실제 운영하는 걸 보면 원가에 대한 인식이 바뀔 거다. 방송에서 그런 걸 다루고 소비자들도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거다. 그러면 나에게도 더 좋게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음식장사에 대해 알려드리고 더 이해하게끔 하고 그러다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 외식업에 들어오는 순환이 이뤄진다. 댓글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좋은 글을 보면서 힘이 난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 한다.



김무열X송지효, 3월 관객 마음 빼앗을 ‘침입자’ 될까



배우 송지효(왼쪽부터), 손원평 감독, 김무열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침입자’ 제작보고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영화 ‘침입자’는 실종됐던 동생 유진이 2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뒤 가족들이 조금씩 변화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오빠 서진이 동생의 비밀을 쫓다 충격적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미스터리 스릴러다.

배우 김무열과 송지효가 영화 ‘침입자’를 통해 변신을 꾀한다. ‘스릴러 남매’로 돌아온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3월 관객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감을 준다.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 CGV에서 영화 ‘침입자’(감독 손원평)의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손원평 감독과 김무열, 송지효가 참석했다.

‘침입자’는 실종됐던 동생 유진이 2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뒤 가족들이 조금씩 변화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오빠 서진이 동생의 비밀을 쫓다 충격적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미스터리 스릴러다.

이 영화는 전 세계 12개국 수출, 국내 25

‘스릴러 남매’로 변신 피해

감독 “시나리오 8년 걸려”

만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한 소설 ‘아몬드’의 작가 손원평의 장편 연출 데뷔작이다. 시나리오 역시 손원평 감독이 직접 썼다.

손원평 감독은 이날 “2001년에 영화를 시작했고, 21년째다. 영화 학교에 가고, 졸업 후에 연출부와 촬영부로도 일을 했고, 지원을 받아서 단편 여러 편을 찍고 원작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다. 이 작품 또한 시나리오를 쓴지는 8년이 됐다. 여러 변화와 변곡점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 자리 서서 감개무량하고 부끄럽지 않은 작품으로 봐고싶다”고 장편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소감을 밝혔다.

송지효는 극중 25년만에 돌아온 미스터

리한 동생 유진 역으로 분했고, 김무열이 낯선 여동생을 의심하는 오빠 서진을 연기했다.

이날 송지효는 “시나리오가 재밌고 어렵고 하는 것보다 ‘내 거다’ 하는 생각에 욕심도 나고, 이걸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에 무작정 달려갔다”며 이번 영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찍으면서도 그 느낌이 나도 무열씨의 말처럼 잘 살리고 싶고 잘 싶었으면 좋겠다 싶은 욕심이 많았다. 그만큼 캐릭터와 시나리오가 참 많이 매력 아필을 했다”며 “나는 나름대로 나는 큰 도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한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좋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무열과 송지효는 서로의 인간적인 면 때문에 촬영장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다.

김무열은 “송지효가 나보다 누나. 내가 더 들어보이지 않나? 비슷한 또래처럼 보이지만, 한 두 살 내가 위로 보인다”며 “(영화에 캐스팅 되면서) 평소엔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모습보다 다른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역할에 캐스팅 되셨다 들었을 때 잘 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충분히 있었다”고 했다.

송지효는 김무열에 대해 “이게 장르물이고 서진과 대립하는 관계여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친해지지 못했다. 역할에 대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웃을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진씨(김무열)를 만나면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무열은 이날 개봉하는 ‘정직한 후보’에 이어 한달 사이 또 다른 영화를 선보이게 됐다. 그는 ‘정직한 후보’는 오늘 개봉한다. ‘침입자’는 한달 뒤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것을 스트레스나 중압감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라고 했다.

김혜수, 4년만에 안방컴백 “틀 벗어난 캐릭터 신선”

배우 김혜수가 안방극장 컴백작으로 ‘하이엔나’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는 21일 처음 방송되는 SBS 새 금드 드라마 ‘하이엔나’(극본 김무리/연출 장태우/제작 키이스트(대표 박성혜))는 변호사들의 물고 뜯고 찢는 하이엔나식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다.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초 같은 변호사 정금자(김혜수 분)와 엘리트 갑판 길어온 화초 같은 변호사 윤희재(주지훈 분)의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며 드라마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예매 시청자들이 ‘하이엔나’ 본방 사수를 예약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김혜수의 출연이다. 자타공인 최고의 연기력과 캐릭터 소화력, 독보적인 아우라를 자랑하는 배우이기 때문이다. 12일 ‘하이엔나’ 측은 김혜수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하이엔나’는 김혜수의 4년만의 안방극장 컴백작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와 관련 김혜수는 “반호인들이 대거 등장하는 드라마임에도 범정 드라마가 아닌 캐릭터 드라마라는 점이 가장 주된 이유였다”며 “변화무쌍하고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드는 캐릭터에 매력을 느꼈고,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난 캐릭터와 메시지 전달 방식이 신선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김혜수를 이렇게 빠져들게 한 캐릭터 정금자의 매력은 무엇일까. 먼저 김혜수는 “금자는 야생성과 생존력으로 무장한 강렬한 캐릭터”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트를 잃지 않으며,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내는 인물”이라고 정금자를 설명했다.

‘스토브리그’ 후속으로 오는 21일 첫 방송